

정수경전 (작자 미상)

"그대는 네 번 죽을 운수에서 한 번은 면하였네. 그러나 앞으로 닥칠 세 번 죽을 운수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점쟁이의 예언 — 수경에게 '세 번의 죽을 액'이라는 운명이 걸려 있음을 알리는 발단. 이후 전개의 뼈대를 미리 깔아 두는 대목.

31번 ㉔ 함정: 한 번을 이미 면했다는 말은 점쟁이의 진술일 뿐, 수경이 '앞으로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대목은 없다. 수경은 곧 안색이 흙빛이 되어 울며 애걸한다.

"화복길흉(禍福吉凶)은 사람의 운수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죽으면 만 리 밖에서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모친은 어떻게 합니까? ... 저에게 정해진 죽을 액을 막을 수 있도록 방책을 가르쳐 주옵소서."

[A] 수경의 간청 — 홀어머니를 두고 죽을 수 없다는 '자신의 처지'를 근거로 삼아 점쟁이에게 방책을 구한다.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화법('만일 제가 죽으면 ~ 어떻게 합니까')으로 상대의 동정심을 자극하며 요청을 이끌어 내는 설득 구조.

32번 직결: [A]의 핵심은 '미래 상황 가정 + 도움 간청'. ㉔의 '물음의 방식으로 요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냄'은 물음이 쓰였다는 사실만 맞고 기능 판단이 어긋나는 선지다.

"저는 혈혈단신 외아들로 어린 시절 일찌감치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 제 분수에 맞지 않게 과거에 참여하고자 하여 모친께서 말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경성에 왔습니다."

수경이 상경한 경위 — 어머니가 '말리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과거를 보러 왔다. 어머니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다.

31번 ㉑ 판별의 결정적 근거. 이 한 문장으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왔다'는 진술을 걸러낼 수 있다.

"앞으로 겪을 두 번의 액도 흉악하고 참혹하지만 그래도 천만요행(千萬要行)으로 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닥칠 일은 ... 그때 이것을 내어놓으면 너를 구해 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그야말로 귀 막고 방울 흔드는 격이다."

[B] 점쟁이의 대응 — 수경이 겪을 미래의 일을 예견하고, '그림을 내어놓으라'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준다.

'귀 막고 방울 흔드는 격'은 비유적 표현. 방책은 주되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께 드러내는 장치다.

32번 ㉔ 함정: 비유는 분명히 쓰였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점쟁이의 의지'가 아니라 '수경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이다. 표현 기법이 맞아도 기능 서술이 틀리면 오답.

"저는 이렇게 추축하였습니다. 그 집 노복 중에 방탕한 놈이 있어 예전에 김 소저와 간통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혼례일이 되니 분기를 참지 못하여 한밤중에 신방으로 돌입하여 정 한림을 죽이려다가 잘못하여 소저를 죽였다고 의혹하였습니다."

이 소저가 사건의 경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장면 — '노복과 김 소저의 관계'라는 관계 추론으로 진범의 윤곽을 잡는다.

31번 ㉓의 근거이자 33번 <보기>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지닌 여성 조력자'가 실증되는 대목.

"분수를 아는 것은 사람마다 중합니다. ... 어찌 이런 일을 모르고 사건을 해결하고 판결하겠습니까? 이제 바빠 그놈을 극형으로 엄히 문책하시면 자연히 알게 되실 것이니 시험하여 보소서. 저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흰 종이 + 누런 대나무'를 '백(白)·황죽(黃竹)'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내고, 관원들에게 수사 방향까지 지시한다.

관아라는 공적 공간에 여성이 '전갈'의 형식으로 개입하는 구조. 직접 나서지 않고도 판결을 주도하는 서술 방식이다.

33번 ㉓ 함정 주의: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는 말은 문제를 이미 해결한 뒤 집으로 돌아가며 하는 말이다.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함'의 근거로 삼으면 어긋난다.

소저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비범하고 또한 신기하다고 깨달으며 여러 관원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인해 진흙빛이 되었다. ... 황죽이 견디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세세히 털어놓았다.

관원들의 '진흙빛 얼굴'과 백황죽의 자백으로 사건이 종결 — 가해자로 몰렸던 수경의 누명이 벗겨진다.

33번 ㉔·㉕의 근거. 관원의 반응 = 여성 조력자의 지적 능력 확인, 백황죽의 자백 = 주인공이 운명을 극복해 갈 것임을 짐작하는 근거.

작품 정리

갈래	고전소설(송사소설·운명 극복담)
성격	전기적, 운명적, 교훈적
작가	작자 미상
시점/화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예정된 죽을 운명에 맞선 주인공의 대응과, 여성 조력자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누명의 해소

특징

- 점쟁이의 예언과 그림이라는 소재가 복선으로 깔린 뒤 결말에서 회수되는 구조
- 가해자(백항죽) · 피해자(수경) · 문제 해결자(이 소저)의 역할 분담으로 서사가 전개됨
- 여성 조력자가 관아라는 공적 영역에 개입해 사건을 추리하고 판결 방향을 제시함
- 대화와 '전갈' 중심의 전개로 인물의 판단 과정이 그대로 드러남

등장인물

- 정수경: 홀어머니를 두고 상경한 외아들. 세 번의 죽을 액이라는 운명에 놓이고, 혼인 첫날밤 누명을 쓴다
- 점쟁이: 수경의 운수를 예언하고 그림(백지에 누런 대나무)을 방책으로 건네는 인물
- 이 소저: 수경과 인연이 있던 여성 조력자. 그림을 해독해 진범을 지목하고 사건을 해결한다
- 백항죽: 집안일하는 종이였으나 총명하여 수청을 들게 된 인물. 사건의 실제 가해자
- 관원들: 사건을 심리하지만 스스로 진상에 이르지 못하고, 이 소저의 전갈에 따라 움직인다

구성

- 발단: 점쟁이가 수경에게 세 번의 죽을 운수를 예언함
- 전개: 수경이 애걸하자 점쟁이가 그림을 방책으로 건넨 [A]·[B]
- 위기(중략): 두 번의 위기를 넘긴 수경이 혼인 첫날밤 신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씀
- 절정: 이 소저가 그림을 해독해 백항죽을 지목하고 사건의 경위를 전갈함
- 결말: 국문 끝에 백항죽이 자백하며 수경의 누명이 풀림

전체 줄거리

홀어머니를 두고 과거를 보러 상경한 정수경은 점쟁이에게 세 번의 죽을 액이 남았다는 말을 듣는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애걸하자 점쟁이는 백지에 누런 대나무를 그린 그림을 주며 마지막 위기에 이것을 내놓으라고 이른다. 두 번의 위기를 넘긴 수경은 혼인 첫날밤 신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인연이 있던 이 소저가 그 그림에서 '백항죽'이라는 이름을 읽어 낸다. 이 소저는 노복과 김 소저의 관계를 근거로 사건의 경위를 추론해 관원들에게 전갈하고, 국문을 받은 백항죽이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수경은 누명을 벗는다.